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(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)

[미국 경제]

- Bloomberg: 7월 미 채용 공고, 거의 1년만에 최저
- YahooFinance: 세인트 루이스 연준 총재, 금리 인하 가능성 언급
- CNBC:연준 의장 후보 Waller, “이달에 금리 인하해야”

[미국 금융]

- Bloomberg: 30년 미 국채 금리가 거의 5%에 근접

[물류]

- WSJ: 6월 이래 태평양 노선 화물 운송비 68% 감소

[무역 전쟁]

- YahooFinance: 트럼프, 대법원으로 부터 신속한 관세 판결 추진

[주택]

- CNBC: 주택 모기지 4주 상승후 하락...6.64%

[오일]

- Bloomberg: 오일가 하락세...OPEC+ 증산 검토로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- WSJ: 미 기업들 깜짝 실적은 가격 인상과 고용 억제 덕분
- YahooFinance: 구글 주가 급등...크롬 브라우저 유지 허용 판결로
- Investopedia: 메이시스, 예상외 수익 증가... 주가 20% 가까이 급등

[보고서]
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 정보

[미국 경제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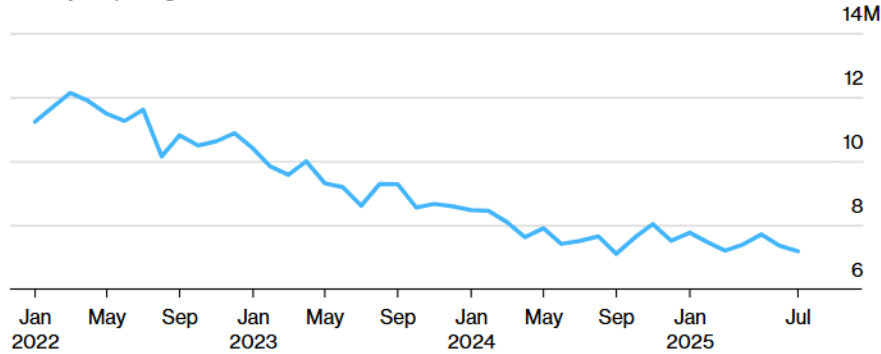
Bloomberg: US Job Openings Decline to Lowest Level in Nearly a Year **7월 미 채용 공고, 거의 1년만에 최저**

- 7월 미 채용공고 건수가 10개월만에 가장 낮았다. 정책 불확실성 가운데 점차 회사들의 구인 추세가 감소되고 있는 신호를 보이고 있다.
- 오늘 수요일 연방노동국 통계에 따르면 6월의 채용공고가 최종 7백36만개에서 7월 들어서는 7백18만개로 줄었다.
- 특히 줄어든 일자리는 보건, 소매 거래, 레저, 호텔 등 환대산업에서 많았다. 올해 일자리 성장의 큰 힘이 됐던 보건 분야는 지난 2021년 이래 가장 낮게 감소했다.

US Job Openings Decline to Lowest in Nearly a Year

Vacancies dropped to 7.18 million in sign of waning demand for labor

US job openings



Source: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

Bloomberg 기사

YahooFinance: Fed hawk Musalem opens the door to possibility of rate cut

세인트 루이스 연준 총재, 금리 인하 가능성 언급

- 세인트 루이스 연준 총재인 Alberto Musalem는 오늘 수요일 노동 시장이 점차 둔화되며 인플레이에 대한 장기적인 우려를 그다지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. 올 가을 금리 인하를 문을 열어 놓고 있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.
- 그는 “고용 속도가 낮고 해고가 증가하는 상황이라 현재 상대적으로 노동 시장이 상당히 약화될 수 있다”고 밝혔다.
- 그는 “현재 기업들로 부터 해고 증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지 않지만 잠재 성장율을 밑도는 실질 경제 성장율과 관세 관련 기업의 수익 압박이 해고 증가로 나타날 수 있다”고 덧붙였다.

YahooFinance 기사

CNBC: Waller, in the running for chair, says Fed should start cutting this month and can adjust pace

연준 의장 후보 Waller, “이달에 금리 인하해야”

- 내년 1월 파월 의장 후임에 거론되고 있는 후보자중 한명인 연준 이사 Christopher Waller는 오늘 수요일 이달 연준의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고 말하면서 “연준의 향후에 금리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”고 말했다.
- 그는 노동 시장이 나빠지면 급속히 나빠질 수 있어 다음 모임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“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나는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 여파를 우려하지 않는다”고 말했다. 9월 연준 정례회의는 16일 부터 이틀간 열린다.

CNBC 기사

[미국 금융]

Bloomberg: US Treasury Yields Brush With 5% as Global Borrowing Costs Mount

30년 미 국채 금리가 거의 5%에 근접

- 미 30년 국채 금리가 지난 7월 이래 처음으로 5% 가까이 근접하고 있다. 이는 투자자들이 미 연방 재정 상황과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.
- 오늘 수요일 30년 국채 금리는 4베이시스 포인트 오른 4.999%를 보이고 있다. 매도세로 차입 비용이 크게 상승하는 영국과 일본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.
- 일부 전문가들은 장기물 국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리스크가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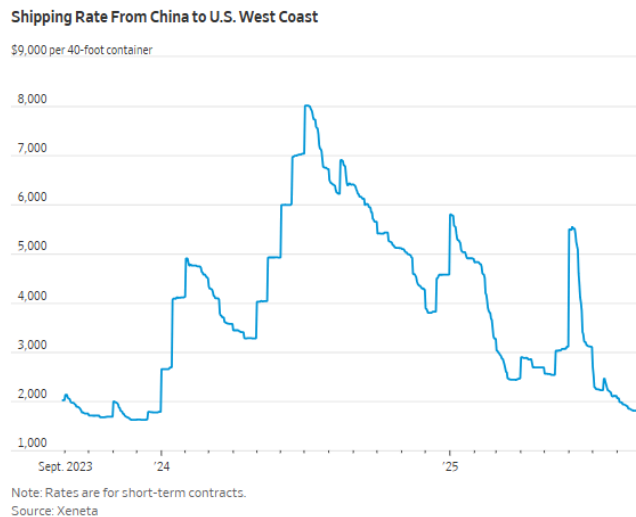
Bloomberg 기사

[물류]

WSJ: Ocean Shipping Rates Sink as Importers Balk at Trade Upheaval

6월 이래 태평양 노선 운송비 68% 감소

- 중국에서 미 서부까지의 선박 운임이 지난 6월 이래 68%가 감소해 피크 해운 운송 시즌이 빨리 끝나가는 신호를 보이고 있다.
- 이와 관련 최근의 관세 불확실성과 무역 정책의 변화로 인해 미 소매업체들은 새로운 주문에 대해 신중한 상황이다.
- Drewry Shipping Consultants에 따르면 40피트 컨테이너 글로벌 해운 요금은 지난 6월 중순 이래 평균 40% 감소했다.



WSJ 기사

[관세 전쟁]

YahooFinance: Trump seeks Supreme Court 'emergency' hearing, rules out India tariff cuts

트럼프, 대법원으로 부터 신속한 관세 판결 추진

- 트럼프는 연방항소법원이 그의 관세 정책 대부분이 불법이라는 판결후에 상반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대법원의 즉각적인 심리를 추진하고 있다.
- 그는 행정부가 오늘 수요일에 대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.
- 그는 “이건 경제적인 재난 상황이다. 우리가 관세 판결에서 이기지 못하면 전에 볼수 없는 충격파가 퍼질 것”이라고 말했다. 그는 또 지난주 금요일 항소법원의 관세 정책 불법 판결로 월요일 주식 시장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.

YahooFinance 기사

[주택]

CNBC: Mortgage demand from homebuyers pulls back, after four weeks of gains

주택 모기지 4주 상승후 하락...6.64%

- 30년 주택 모기지율 평균이 6.69%에서 6.64%로 하락했다.
- 주택 융자 리파이낸싱 신청자는 이와 관련 지난주에 1% 증가했으며 지난해 같은 주에 비해 20% 증가했다.
- 반면에 지난주에 주택 구입 모기지 신청자 숫자는 3% 하락했으며 지난해 같은 주에 비해서는 17% 늘어났다.

CNBC 기사

[오일]

Bloomberg: Oil Drops on Report OPEC+ Will Consider Fresh Supply Boos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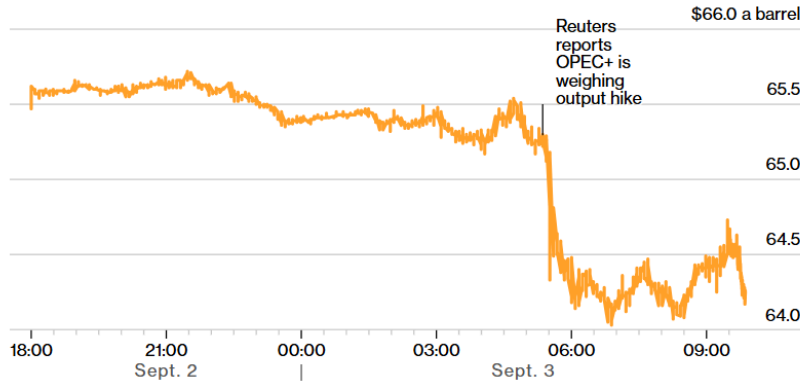
오일가 하락세...OPEC+ 증산 검토로

- OPEC+가 이번 주말에 만나 새로 증산을 검토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오일가는 하락세를 보였다.
- 서부 텍사스 중질류가 2.6% 하락했다. 그 전에도 예상외로 저조한 미 경제 지표로 오일 사용 기대를 낮추면서 하락했었다.

Oil Slips on OPEC+ Report

Producer group could consider a fresh round of supply increases

WTI futures



Bloomberg 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WSJ: Behind This Season's Bumper Earnings: Job Cuts, Price Hikes, Glum Workers

미 기업들 깜짝 실적은 가격 인상과 고용 억제 덕분

- 미 기업들이 예상외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. 비용을 줄이고,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.
- 기업들은 고용을 억제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보다 효율적인 업무 처리와 가격 인상을 도모하고 있다.
- 현재 소비자 신뢰지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직원들은 더 적은 재원으로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요구받고 있다.

WSJ 기사

YahooFinance: Alphabet stock soars after judge doesn't force Google to sell Chrome browser in landmark antitrust case

구글 주가 급등...크롬 브라우저 유지 허용 판결로

- 구글 주가가 오늘 수요일 오전 8% 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. 연방법원이 어제 오후에 구글이 반독점 심리에서 크롬 브라우저를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.
- 법원은 그대신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해온 데이터를 고유하도록 요구했다.
- 이에 따라 크롬 브라우저의 매각이라는 심각한 타격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.

YahooFiance 기사

**Investopedia: Macy's Stock Soars as 'Omni-Channel' Retailer's
Comparable Sales Unexpectedly Rise**
메이시스, 예상외의 수익 증가... 주가 20% 가까이 급등

- Macy's의 수익과 판매 예상치를 초과 달성했다. 동일 점포 매출이 증가하면서 전망치도 상향 조정했다.
- 메이시스는 자회사 메이시스 백화점과 자회사인 블루밍데일과 Bluemercury의 동일 매장 매출이 상승했다.
- 메이시스는 올해 전체 조정 주당순이익(EPS)와 예상 매출을 상향 조정했다

Investopedia 기사

[보고서]

뉴욕증시, 관세 불확실성에 하락...채권시장도 불안감 확산

다우 0.6%↓·나스닥 0.8%↓...미국채 30년물 금리 5% 돌파 시도
'상호관세 위법' 2심 판결에 재정 불안감 증폭...시장, 고용보고서 주목

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2일(현지시간) 뉴욕증시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다.

상호관세 정책이 위법인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인될 경우 미국의 재정부담을 키울 것 이란 우려가 채권시장 불안을 가중시켰다.

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49.07포인트 (-0.55%) 내린 45,295.81에 거래를 마쳤다.

...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. Suite 410 | New York, NY 10022 US

[Unsubscribe](#) | 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